

커뮤니케이션 規則 理論의 本質과 限界에 관한 小考

姜 吉 鎬

서울대 新聞學科 助教

目 次

- | | |
|-------------------|--------------------|
| I. 머릿말 | IV. 規則理論의 本質과 特性 |
| II. 規則의 概念 | A. 規則理論의 基本前提 |
| III. 規則의 接近方式 | B. 意味의 協業 管理 理論 |
| A. 規則 追從의 行動 接近方式 | C. Shimanoff의 規則理論 |
| B. 規則 支配의 行動 接近方式 | V. 規則理論의 限界 |
| C. 規則 使用의 行動 接近方式 | VI. 맺는 말 |

I. 머릿말

커뮤니케이션學이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그 위치를 공고히 해 감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科學의 理論化 및 諸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理論의 출현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다.

그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최근에 몇몇 新理論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들 새로운 이론들 중의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規則理論(Rule theory)이다. 이 規則 理論은 기존 커뮤니케이션理論과는 다른 맥락에서 출발한다. 즉 人間과 社會를 기계론적이며 決定論的 立場에서 보고 주로 전개되었던 기존의 實證主義論的 커뮤니케이션理論과는 달리 人間과 社會 現象을 自意的이고 能動的인 立場에서 파악하고 있다. 주로 Wittgenstein, Austin, Searle 등의 言語哲學으로 부터, 部分的으로는 人類學, 言語學, 社會學등으로 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 커뮤니케이션 規則 理論은 커뮤니케이션 행위자의 커뮤니케이션 行動을 規則이라는 관점에서 밝혀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規則 理論은 規則이라는 概念의 복잡한 속성으로 인하여 통합된 이론이라기 보다는 아직 論議의 여지가 있는 理論이라고 할 수 있겠다. Cushman과 Whiting이 처음으로 커뮤니케이션 理論에 規則의 接近方式의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¹⁾ Pearce, Cronen, Shimanoff, Sigman 등에 의하여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전술한 이유때문에 理論이라기 보다는 理論化를 위한 假說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 Pearce와 Shimanoff는 각각 커뮤니케이션 規則 理論을 그들 나름대로 체계

1) D.P. Cushman and G.C. Whiting, "An Approach to Communication theory: towards consensus on rules." *Journal of communication*, 22, 1972.

화하고 있다.

本考는 Pearce의 理論과 Shimanoff의 理論을 中心으로 커뮤니케이션 規則理論의 本質과 일반적 特性을 살펴봄으로써 規則理論에 대한 諸 論議를 검토하고 規則 理論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해서 먼저 規則의 속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規則의 概念

規則의 개념은 規則 理論家들간에도 상호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을 만큼 매우 불명확하다. Cushman과 Pearce는 “規則 理論의 발전을 저해해온 敵은 規則 概念의 모호성때문”이라고²⁾ 하면서 規則 概念의 정립을 강조하였으며 Bochner는 “規則 理論에 있어서 나의 불만은 規則論者들의 科學 哲學이 아니라 그들의 規則 概念”이라면서³⁾ 規則 概念의 혼란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같이 規則의 概念은 아직 통합된 단일한 개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히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規則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 속성은 規則과 유사하면서도 대조되는 개념인 法則의 일반적 속성과 상호 대비시켜 살펴봄으로써 規則의 概念을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겠다.

法則은 현재까지의 커뮤니케이션과학 이론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일반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개념으로서 現象들 간에는 예외없는 인과적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원인에 대한 결과의 발생에 예외가 존재하여 그 원인에 대한 예측력을 상실케 된다면 그것은 法則이 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規則은 예외를 인정한다. 法則은 현상들의 관계를 지배하지만 規則은 그러한 관계를 지배하지 않는다. 단지 어떠한 현상이 일정한 定型性(Regularity)을 보여 주면 그 현상에는 規則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規則은 또한 반드시 인과적 관계를 전제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法則은 선행 조건을 전제한 후, 그 결과를 기술하는 형식으로 표현되지만, 規則은 반드시 선행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단일 선행 조건이 있는 경우, 그 결과의 발생은 확률적으로 표현될 수 밖에 없다.⁴⁾ 이 같은 점에서 規則은 패턴화되고 사회적으로 의미화된 행동 결과의 조직화와 논리를 밝히려는 시도에 유용할 수 있는 것으로, 커뮤니케이션 規則은 커뮤니케이션 내용의 조사를 통하여 인간

2) D.P. Cushman & W.B. Pearce, "Generality and necessity in three types of human communication theory-special attention to rules theory." in D. Ruben (ed.), *Communication year book* I, (Transaction Books New Brunswick, New Jersey, 1977) p.177.

3) A.Bochner, "On taking ourselves seriously: An analysis of some persistent problems and promising directions in interpersonal research." *Human Communication theory*, 4, 1978, pp.188-89.

4) B.A. Fisher, *Perspectives on human communication*, (Macmillan publishing Co., Inc., New York, 1978) p.76.

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의 과학적 설명과 예측의 토대를 이루는 일정한 정형적 양태를 발견 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규칙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찰과 참여로 부터 개인의 행동을 기술하는 유용한 방식이지만, 그 반대로 한 개인이 規則을 학습하면 規則은 개인의 행위를 이끌기도 한다.⁵⁾ 이 점이 바로 많은 規則 理論 學者들이 規則을 정의함에 있어 가장 중시하는 規則의 속성이다. 왜냐하면 規則 理論의 유용성 여부는 規則이 얼마나 개인의 행위를 이끌고 지배하느냐는 정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Sigman이 規則의 개념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차원을 사회적 행위자에 의한 規則의 自覺性(awareness)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규칙의 속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⁶⁾ 또한 Rushing도 상징적 행동 혹은 인간 행위를 지배하는 원리로 規則을 정의하면서 規則의 規範性을 중시하고 있으며⁷⁾ Cushman과 Whiting도 규칙은 특정 상황에서의 특정 상징에 대하여 적합한 반응일 것이라는 사람들의 공통적 기대치의 집합이라고 말함으로써 행위자가 規則을 자각하여 그를 추종하게 된다는 規則의 지배성을 암시하고 있다.⁸⁾

Miller는 커뮤니케이션 관계의 구조, 절차 및 내용과 관련지으면서 일반성의 여러 수준에서 공유된 함의를 표현하는 진술들이 規則이라고 정의하고⁹⁾ 規則의 속성에 행위자의 능동적인 면을 어느 정도 포함시키고 있으며, Gottlieb는 規則을 선택의 기준으로서 概念化되는 것으로 봄으로써 他학자들의 정의에 비해 행위자의 역할에 보다 적극성을 부여하고 있다.¹⁰⁾

이와 같이 規則의 개념 및 속성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規則論者間에도 불일치되고 있으나 Shimanoff는 諸 학자들의 規則에 대한 정의를 분석, 요약하여 規則의 일반적 특성을 追從性(Follow ability), 規定性(prescription) 및 狀況性(contextuality)로 분류하고 있다.¹¹⁾

規則의 追從性이란 반드시 規則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으나 항상 변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뜻한다.¹²⁾ 즉, 인간 행동은 규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非追從性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規則의 追從性은 단지 인

5) V.E. Cronen & L.K. Davis, "Alternative approaches for the communication theorist: Problems in the laws-rules-systems trichotomy."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 1978, p.123.

6) S.J. Sigman, "On communication rules from a social perspectiv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7, 1980, p.38.

7) J.H. Rushing, "The rhetoric of nonverbal communication in interpersonal encounters," Ph.D. 학위논문, S.B. Shimanoff. *Communication rules: theory and research* (Sage Pub., London, 1980) p.71에서 再引用

8) D.P. Cushenan & G.C. Whiting, 앞의 論文, p.225.

9) G.R. Miller, "The status of theory and research in interpersonal communication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 1978, p.175.

10) G. Gottlieb, *Logic of choice: an investigation of the concepts of rules and rationality*(Macmillan; New York, 1968). p.157.

11) S. Shimanoff, 앞의 책, pp.39-50.

12) 위의 책, p.41.

간행동이 현실적으로 規則을 따르는 여부에 관계없이 물리적·육체적으로 그 規則을 수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規則이 성립되기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規則의 規定性은 規範性(normative force)이나 實用的 普編性(practical necessity)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規則이 인간 행위의 정당성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¹³⁾ 즉 규칙의 평가적 속성을 일컫는 것으로 인간 행동을 타당하도록 이끄는 원천이라 할 수 있다.

Shimanoff가 追從性, 規定性 외에 덧붙인 規則 속성의 또 하나는 規則의 狀況性인데, 이 規則의 狀況性이란 하나의 規則은 유사한 상황에서만 작용하지 이질적 상황에서는 작용하지 않는다는 規則의 狀況의 특성을 가르킨다.¹⁴⁾

Shimanoff의 정의에 나타나는 規則의 속성은 모두 法則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성이기 때문에 동시에 法則과 規則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그녀의 정의는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 가장 설득력있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規則이란 法則을 포괄하는 개념이면서도 法則과는 대조적으로 인간 행동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되지만, 規則이 보편화되고 정형화되면 역으로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평가적 준거로 사용되는 것이라 하겠다.

III. 規則의 接近方式(Rules Persepective)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規則(Rules)은 시간적 인과성에 바탕을 두어 인간행동을 설명하려는 法則(law)의 입장과는 달리 인간 행동의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定型的 유형의 발견을 통하여 인간 행동의 과학적 설명과 예측을 하고자 하는 확률론적 입장에 입각하고 있다. 規則이 정형적 인간 행동의 양태를 밝히려는 것이고, 인간 행동의 정형적 패턴은 그 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에 주로 좌우되기 때문에 규칙의 접근방식은 인간 행동이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유형화된다. 그러므로 規則이 생성되고 운용되는 맥락인 사회 구조 혹은 사회 질서와 커뮤니케이션 규칙이 동질적이나 이질적이냐는 정도가 規則의 접근방식의 이론적 문제를 구성하고 있다.¹⁵⁾ 비록 Sigman은 規則 구조의 이조물피(isomorphy)의 정도를 규칙의 접근방식의 준거로 보고 있지만¹⁶⁾ 그의 규칙 구조의 이조물피(isomorphy)의 개념은 사회 구조의 동질성 및 이질성의 정도 개념과 다를 바 없다.

規則의 接近方式은 동질적인 사회 구조 혹은 사회 질서를 한 쪽 끝으로 하고 다른 한 쪽

13) 위의 책, pp.43-44.

14) 위의 책, p.46.

15) W.B. Pearce & R.L. Wiseman, "Rules theories: varieties, limitations and potentials," In W.B. Gudykunst (e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eory (Sage pub., London, 1983) pp. 80-81.

16) S.J. Sigman, 앞의 論文, pp.37-49.

의 끝을 이질적인 사회구조 혹은 사회 질서로 놓은 일직선상의 위치에 따라 規則 追從의 行動 接近方式(Rule-following behavior perspective) 規則 支配的 行動 接近方式(Rule-governed behavior perspective) 및 規則 使用的 行動 接近方式(Rule-Using behavior perspective)으로 세분되고 있다. 위의 일반적인 規則의 접근방식의 분류에 따라 細部的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 規則 追從的 行動 接近方式

사회적 행위자가 동질적인 사회 질서에서 행동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관점이다. 이 입장은 규칙이 동질적인 사회 질서내에서 운영되고 있고 개인적 행위자가 이미 공통적인 커뮤니케이션 규칙을 공유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¹⁷⁾ 커뮤니케이션 행위자는 어느 정도 정형성을 갖고 행동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이 접근방식에서의 規則은 관찰되는 행동의 定型性(Regularities)으로 정의된다.¹⁸⁾ 일정한 행동 양태는 규칙으로 再現되고 관찰자는 재현된 행동 양태를 발견하여 그것을 규칙으로 기술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 접근방식은 매우 記述的이나, 規則을 이루는 행동 양태가 이미 정형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의 행동 양식이 왜 再發生되고 定型化되는가의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설명력이 결여되고 있다.

즉 規則 追從的 行動 接近方式은 規則이 구조화된 특정 문화 혹은 사회의 특정 행동양식이 지닌 특정 기능을 조사하는 emic descriptive process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⁹⁾

規則의 記述 構造도 관찰된 행동 양식이 일어나는 이유의 규정성은 명시하지 않으나 관찰된 행동 양식을 유목별로 분류하여 행동 양식의 定型性을 기술할 수 있는 類目的 3段論法(categorical syllogism)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規則 構造는 다음과 같다.

If X, then 사람들은 행동 Y를 행한다.

X;

그러므로 이 사람은 아마 행동 Y를 행할 것이다.²⁰⁾

B. 規則 支配的 行動 接近方式

이 접근방식은 동질적인 사회 질서와 이질적인 사회 질서를 서로 양극으로 하는 一直線상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 구조에서 規則이 운용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여기서

17) W.B. Pearce & R.L. Wiseman, 앞의 論文, p. 82

18) 위의 論文, p. 82.

19) K.L. Pike, "Etic and emic standpoints for the description of behavior," In A.G. Smith (ed.), *Communication and culture* (Holt, Rinehart & Winston, New York, 1966) p.

20) W.B. Pearce & R.L. Wiseman, p. 82.

規則은 주어진 특정 상황에서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행동하여야만 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信念(belief) 혹은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 信念이다.²¹⁾ 이 입장은 사람들의 의도를 밝혀 내고, 사람들이 그들의 의도(intention)를 실현시키기 위한 행동 양식중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동 양식을 발견하려는 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規則 支配的 行動 接近方式은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의미와 선택적 선택성이 존재하고, 이 같이 양식화된 規則중 행위자들이 內在化하고 있는 規則이 존재하며 對人 行爲者들은 마치 그들이 이러한 規則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위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²²⁾ 즉 이 입장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의식적·의도적·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러한 의도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實用的 三段 論法(practical syllogism)을 채용하여 規則의 구조를 표현한다. 이 접근방식의 規則 構造는 다음과 같다.

사람 A는 행동 Y를 원한다.

사람 A는 만일 행동 Y를 실현시키려면 그가 행동 X를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 A는 그 자신이 행동 X를 하도록 작정한다.²³⁾

C. 規則 使用的 行動 接近方式

이 접근방식은 規則 支配的 行動 接近方式을 보다 확장시킨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즉 여러 의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위자가 여러 規則들을 추종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 행위자가 어떠한 의도를 실현시키고자 하며 그 의도에 따라 어떠한 규칙을 선택하여 추종하는 가를 관찰함으로써 행위자의 규칙 사용을 알아 보고자 하는 입장이다.²⁴⁾ 따라서 規則 使用的 行動 接近方式은 행위자들이 그들의 상호 문제가 되는 개념상 차이의 해결을 위하여 커뮤니케이션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며,²⁵⁾ 規則 支配的 行動 接近方式보다 더욱 복잡한 상황인 이질적 사회 질서에서 協力(coordination)과 문제 해결의 도구로서 커뮤니케이션 規則의 使用方式을 분석하는 에틱 디스크립티브 프로세스(etic descriptive process)의 연구라고 하겠다.²⁶⁾

21) 앞의 論文, p. 83.

22) 위의 論文, p. 84.

23) 위의 論文, p. 83.

24) S.W. Littlejohn, *Theories of human communication*, (Wadsworth Pub., Belmont, 1983) p. 62.

25) J. Lull, "A rules approach to the study of television and society,"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9, 1982, p. 5.

26) K.L. Picke, 앞의 論文, p.

IV. 規則 理論의 本質과 特性

A. 規則 理論의 基本前提

規則 理論은 인간 행동의 定型的 樣式을 기술하고 설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 행동을 예측하고자 함을 그 目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規則 理論의 출발선상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는 인간 행동(human behavior)을 어떻게 概念化시키고 規則 理論의 연구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하는 점이라 하겠다. 이런 이유로 規則 理論은 일련의 人間 行動에 대하여 몇가지 假定을 전제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간 행동은 두 종류의 활동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因果的 必然性에 의하여 支配되는 활동이며 또 다른 하나는 實用的 必然性에 의하여 의도적이며 선택적으로 행하는 활동인데, 前者를 動作(movement)이라 하고 後者를 行爲(action)라고 한다.²⁷⁾ 그런데 規則 理論은 의도적 행동을 그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에 規則 理論의 연구 대상은 행위라 하겠다.

행위도 한 개인이 여러 대안들 중에서 선택하고, 그의 행위를 비판해서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他者와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하는 행위와 커뮤니케이션할 필요가 없는 행위로 구분된다고 規則 理論家들은 가정한다.²⁸⁾ 전자는 協業 狀況(coordination situations)이라고 불리워지며 이 協業 狀況은 공동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個人들 相互間 合意를 이루도록 規制하는 기능이 주임무이다. 반면에 후자는 情報 處理 狀況(information processing situations)이라고 하며 여기서의 기능은 個人的 知覺을 規制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⁹⁾ 커뮤니케이션 規則 理論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하는 協業 狀況임은 두 말할 나위 없다. 따라서 이 狀況에서의 人間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人間 行動을 協業化시키기 위하여 合意를 規制하는 것이고, 그 구조는 合意를 規制하는데 포함되는 符號(code)와 네트워크 規則이며, 合意를 規制하는데 이용된 規則들을 現 目標에 적응시키는 것이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過程이 된다고 하겠다.³⁰⁾

協業 狀況에서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基本 分析 單位는 規則의 標準化된 使用用法(standardized usage)이라고 規則 理論者들은 주장하고 있다.³¹⁾ 規則의 標準化된 使用 用法이란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符號와 네트워크, 規制의 體系를 의미한다. 커뮤니케이션 規則 理論者들의 研究 定向은 기존 規則이 형성되어 있는 標準化된 協業 狀況에서의 規則을 발

27) D.P. Cushman, "The rules approach to communication theory: A philosophical and operational perspective," East-west communication institute seminar 1980, pp. 1-2.

28) 위의 論文, p. 4.

29) D.P. Cushman & W.B. Pearce, 앞의 論文, pp. 177-78.

30) D.P. Cushman, 앞의 論文. 1980, p. 5.

31) 위의 論文, p. 6.

견하는데 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 規則 理論은 위의 假定들을 공통적인 기본 前提로 하고 있다. 그러나 規則의 概念도 제대로 定立되지 않은 狀況에서 커뮤니케이션 規則 理論의 정립을 기대하기란 어렵지만 가장 최근에 Pearce와 Shimanoff 두 理論家에 의하여 비교적 體系화된 커뮤니케이션 規則 理論이 제시되고 있다. 해서 본고에서는 소위 Pearce의 意味의 協業 管理 理論 (coordinated management of meaning 또는 CMM이라 함)과 Shimanoff의 統合의 理論을 中心으로 커뮤니케이션 規則 理論의 본질과 特性을 살펴보고자 한다.

B. 意味의 協業 管理 理論(Coordinated Management of Mea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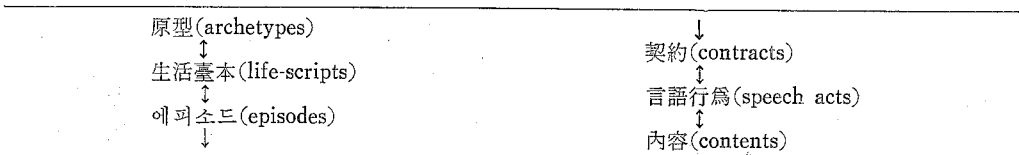
意味의 協業 管理 理論(이하 CMM理論이라 칭함)은 행위하는 행위자, 對人間 規則 體系 (interpersonal rual systems) 및 커뮤니케이션 樣式(communication form)의 개념을 도입하여 커뮤니케이션 規則 理論을 밝히고 있다. 특히 意味의 管理(management of meaning) 개념은 意味의 管理 主體가 커뮤니케이션 行爲者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行爲者 개념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고 協業 管理(coordinated management)의 개념은 協業에 이르는 合意를 위해 앞에서 설명한 規則의 標準화된 使用 用法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對人間 規則 體系와 관계가 있다. 이를 中心으로 CMM理論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커뮤니케이션 행위자와 意味의 管理

커뮤니케이션 행위자는 총체적인 체계의 일부인 동시에 相互作用의 規則들의 집합을 소유하고 있는 下位體系(sub system)로 간주되며³²⁾ 시간의 경과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행위자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規則을 內在化하고, 內在화된 規則이 그들의 행동을 이끌게 된다는 것이 이론의 가정이다. 이 점은 앞의 規則 概念에서 보았듯이 規則이 인간행동을 規制한다고 보는 諸 學者들의 강조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Pearce는 意味가 사용되는 맥락에 따른 意味의 계층적 구조를 가정하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행위자의 意味는 意味의 계층 구조중 一部라고 보고 있다.³³⁾ 즉 커뮤니케이션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意味는 意味가 사용되는 狀況에 따라 意味의 계층 구조중 일부가 된다는 것이다. 意味의 階層 構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표 1>과 같다.

<도표 1> 意味의 階層構造 模型³⁴⁾



32) W.B. Pearce & V.E. Cronen, *Communication, action and meaning: The creation of social realities*, (Praeger, New York, 1980) p. 148.

33) 위의 책, p. 130.

34) 위의 책, p. 131.

內容(content)은 궁극적으로 知覺된 現實을 커뮤니케이션 行爲者가 조직화하고 해석하는 指示的 認知 過程과 연관된 것으로³⁵⁾,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시켜 볼 때 담화(utterance)의 메시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言語 行爲(speech act)는 한 커뮤니케이션 행위자가 무언가를 말함으로써 다른 커뮤니케이션 행위자에게 行爲을 하도록 요구하는 言語 行爲이다.³⁶⁾ 즉 간단한 의도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획된 메시지라 할 수 있다.

他 커뮤니케이션 행위자와의 관계를 한정하는 경향을 계약(contract)이라고 하며³⁷⁾, 에피소드(episode)는 상호작용의 한 단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커뮤니케이션 행위자가 지각하는 言語 行爲이다. 즉, 對人間 커뮤니케이션에서 양자가 산출해 내는 하나의 메시지 쉼스(message sequence)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에피소드가 協業을 위한 規則의 分析 單位가 된다는 점에서 CMM理論의 가장 중요한 意味 次元이라 할 수 있다.³⁸⁾

에피소드들의 집합을 생활 대본(lifescrypt)이라 하고³⁹⁾ 原型(archetype)은 커뮤니케이션 행위자가 경험을 구조화시키는 기본 論理를 뜻한다.⁴⁰⁾ 이와같은 意味의 계층 구조에 따라 同一한 意味가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이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행위자는 意味 해석을 위한 情報處理者로서의 역할도 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행위자의 情報 處理 構造를 Pearce는 規則으로 보고 있다.⁴¹⁾ 情報 處理의 構造로서의 規則은 言語 行爲 理論으로부터 概念을 차용하여 온 構成 規則(constitutive rule)과 定型 規則(regulative rule)으로 구분된다.

構成 規則은 감각적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이 어떠한 意味로 받아들여지는가를 밝혀주는 規則이거나 혹은 意味의 계층 구조중의 한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가를 밝혀주는 規則을 말한다.⁴²⁾ 즉 부여된 의미의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定型 規則은 구성 규칙이 어떻게 인지적으로 재조직화되는가를 밝혀주는 規則으로⁴³⁾ 構成 規則이 커뮤니케이션 행위자의 순수한 내적 정보 처리라 한다면 定型 規則은 행위자가 인식하게 됨으로써 對人間 커뮤니케이션 行爲時 作用하는 外的 情報 處理의 속성도 띠고 있는 規則이라고 하겠다.

Pearce와 Cronen은 規則의 運用을 밝히기 위하여 規則 構造를 기술할 수 있는 몇가지 論理 記號를 고안해 냈다. '——'의 論理 記號는 '~狀況에서(in the context of)'라는 뜻으

35) 위의 책, p. 130.

36) 위의 책, p. 132.

37) 위의 책, p. 133.

38) 위의 책, pp. 133-34.

39) 위의 책, p. 136.

40) 위의 책, pp. 137-38.

41) 위의 책, pp. 138-139.

42) 위의 책, p. 141.

43) 위의 책, p. 144.

로, '→'는 '∼로서 간주한다' (count as)로 '⊃'는 '만일∼하면, 그러면 ∼' (if ∼, then ∼)의 의미를 대신하고 있다.⁴⁴⁾ 이같은 論理 記號로 가장 간단한 構成 規則과 定型 規則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것은 <도표 2>와 <도표 3>과 같다.

<도표 2>는 特定 狀況에서 만일 특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된다면 한 意味 次元에서의 意味는 다른 次元에서의 意味로 생각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구성 規則의 도표이다.

<도표 3>은 가장 단순한 定型 規則을 도시한 것인데 特定한 社會의 行爲의 狀況에서 만일 주어진 先行 條件이 충족되면 그 다음 행위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혹은 저지하는 어느 정도의 規制的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도표 2> 構成 規則의 가장 간단한 形態⁴⁵⁾

$$CR = \frac{MC_k}{A \supset [MC_i \rightarrow MC_j]}$$

단, A=先行 條件

MC=意味 構成

i, j, k=意味의 階層構造중의 한 次元.

→='∼로서 간주된다'는 뜻의 論理構造

⊃='∼의 狀況에서'라는 뜻의 論理構造

⊃='만일...하면, 그러면...' 뜻의 論理構造

<도표 3> 定型規則의 가장 간단한 形態⁴⁶⁾

$$RR = \frac{LS_j}{\frac{EP_i}{[A \supset (D_o(S_p A_c t))_{1 \dots n}] \supset C}}$$

단, RR=定型 規則

A=先行條件

S_pA_ct=言語行爲

1...n=言語行爲의 範圍

D_o=當爲性을 나타내는 論理記號(즉, 의무적으로 행하여야 할 言語行爲, 금지되어야 할 言語行爲 등을 뜻하는 論理記號).

c=事後 條件.

EP_i=특정 에피소드 i

LS_j=특정 生活臺本 j

2. 對人間 規則 體系와 協業 管理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MM理論은 한 커뮤니케이션 行爲者의 規則 體系를 構成 規則과 定型 規則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 커뮤니케이션 行爲者가 다른 커뮤니케이션 行爲者와 相互作用할 때 그의 規則을 어떻게 그러한 對人間 行爲에 運用하는가? Pearce는

44) 위의 책, pp. 139-40.

45) 위의 책, p. 142.

46) W.B. Pearce, V.E. Cronen & L.M. Snavely, "A theory of rule-structure and types of episodes and a study of perceived enmeshment in undesired repetitive patterns." In D. Nimmo (ed.) *Communication yearbook* 3, (Transaction Books, New Jersey, 1979) p. 229.

對人間 規則 體系를 論理力(logical force)이라는 概念으로 설명하고 있다. 論理力이란 커뮤니케이션 行爲者로 하여금 特定한 방식으로 行爲하도록 가해지는 壓力이며 規則 體系는 이러한 論理力을 제공한다고 그는 보고 있다.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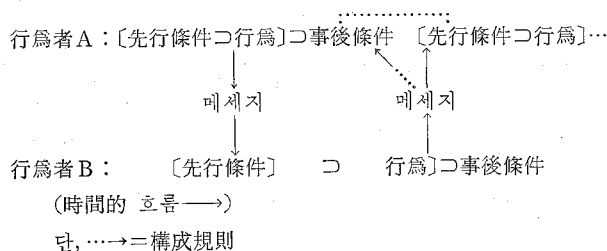
論理力은 크게 事前 論理力(prefigurative logical force)와 實用 論理力(practical logical force)로 나누어 진다. 事前 論理力이란 先行 條件때문에 特定 方式으로 行爲하도록 하는 論理力으로 소위 先行 條件에서 부터 行爲까지의 연쇄에 작용하는 反面에⁴⁸⁾ 實用 論理力은 앞으로의 條件을 성취하기 위하여 特定한 방식으로 行爲하도록 만드는 論理力으로 行爲부터 事後 條件까지의 연쇄에 작용하는 論理力이라 할 수 있다.⁴⁹⁾ 한편 Perce는 論理力의 強度를 測定할 수 있는 方法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용 방식과 직접적인 인터뷰의 두가지를 들고 있다.⁵⁰⁾

위에서 論理力으로 對人間 相互作用時 한 커뮤니케이션 行爲자의 規則 運用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具體的으로 커뮤니케이션時 두 커뮤니케이션 行爲자간의 개별적 규칙이 어떻게 相互調和(intermesh)되는가? 실상 CMM理論은 위의 문제 즉, 커뮤니케이션時 規則이 어떻게 作用되며, 相互作用하는 두 커뮤니케이션 行爲者는 어떻게 規則을 管理하고 運用하는 가를 밝혀 내고자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CMM理論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두 커뮤니케이션 行爲자가 그의 커뮤니케이션 規則과 先行 메세지에 따라 메세지를 교대로 창출하는 行爲'로 정의하고 있다.⁵¹⁾ 즉, 커뮤니케이션은 規則을 사용하는 行爲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두 커뮤니케이션 行爲자의 規則은 相互調和를 이루어 새로운 對人間 體系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行爲자의 상호조화하는 過程은 <도표 4>와 같다고 Pearce는 보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行爲자 A는 先行 事件에 반응하여 特定 方式으로 行爲하거나 혹은 事後事

<도표 4> 커뮤니케이션時 規則의 相互調和 過程⁵²⁾



47) W.B. Pearce, & V.E. Cronen, 앞의 책, 1980, p.154.

48) 위의 책, p.164.

49) 위의 책, pp.164-65. 커뮤니케이션 行爲의 한 에피소드는 先行條件—行爲—事後條件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50) 위의 책, pp.165-68.

51) 위의 책, p.169.

52) 위의 책, p.174.

件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特定 行爲를 하고 이 行爲는 他 커뮤니케이션 행위자인 B에게 메세지로 받아들여 진다. (실선의 의미) B는 그의 構成 規則을 이 메세지 해석에 사용한다. 이와 같이 A의 행위는 B가 그의 定型 規則에 따라 反應하는 先行 條件이 되고 순차적으로 B의 행위도 A에게 위와 同一한 방식으로 작용하게 되며(점선), 協業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그들의 規則을 재조정하면서 이 과정이 반복된다는 것을 <도표 4>에서 보여 주고 있다.

계속 반복되는 과정중 한 과정이 곧 하나의 에피소드이다. 에피소드는 크게 문화적으로 인정된 의미와 행동 패턴의 에피소드 1, 커뮤니케이션 행위자가 내재화하고 있는 意味와 행동 패턴—構成 規則의 에피소드 2, 및 相對方의 메세지 썬퀀스를 해석하는 意味와 행동 패턴—定型 規則의 에피소드 3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⁵³⁾

CMM은 두 커뮤니케이션 행위자가 에피소드 1.을 공유하고 있거나 동일한 에피소드 2.를 만들기 원할 경우 및 에피소드 1.의 구조가 에피소드 2.와 동일한 경우 등등에서 쉽게 이루어 진다.

이러한 CMM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配役化(casting), 反射化(mirroring), 協商(negotiation)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⁵⁴⁾ 配役化란 한 커뮤니케이션 행위자가 선호하는 에피소드 2.를 가지고서 相對 커뮤니케이션 행위자가 원하는 에피소드 3.의 내용에 따라 對人的 관계를 발전시키거나 종료시키는 전략인 반면, 反射化란 配役化와 반대되는 전략이며 協商은 커뮤니케이션 행위자 상호간의 에피소드 2.를 타협하는 전략이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에피소드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자가 상호작용하는 사건의 썬퀀스에 의미를 두는 정도인 응집력(coherence), 상호작용시 행위의 썬퀀스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規則중 선택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인 統制性(control) 및 커뮤니케이션 행위자가 상호작용을 통하여 느낀 만족에 대한 평가 정도인 評價性(valence)으로 평가될 수 있다.⁵⁵⁾

이와 같이 CMM이론은 커뮤니케이션 에피소드를 분석 단위로 삼아 인간을 정보 처리자인 하나의 체계로, 행위의 場으로서 對人間 規則 體系를 또 하나의 體系로 파악하고 이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커뮤니케이션 행위자들이 그들의 규칙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화시키는가를 밝힌 이론이라고 하겠다.

C. Shimanoff의 規則 理論

Shimanoff의 規則 理論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規則의 개념과 속성을 분석·정리하여 諸 論議들을 統合시켰다는 점이 가장 큰 특색이다. 특히 그의 規則 理論은 일반론적인 規則 理

53) W.B. Pearce, "The coordinated management of meaning: A rule-based theory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 G.R. Miller (ed.), *Explorations i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age Pub., London, 1976), pp. 21-22.

54) 위의 論文, p. 23.

55) W.B. Pearce & V.E. Cronen, 앞의 책, 1980, pp. 169-176.

論의 性格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커뮤니케이션理論에로의 개념화와 적용을 시도하여 커뮤니케이션 規則 理論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도 그의 理論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녀는 '특정 상황에서 반드시 행해져야 할(obligated) 행동과 선택할(preferred) 행동 및 금지되어야 할(prohibited) 행동의 지침적(followable) 規定'이라고 規則을 정의하면서⁵⁶⁾ 規則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행동(behavior)이라고 밝히고 있다.⁵⁷⁾ 따라서 Shimanoff 理論의 핵심은 行動으로부터 規則을 어떻게 推論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 推論된 일반적 規則은 개별적 행위자의 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하는 문제를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는데 있다. 이를 中心으로 Shimanoff의 理論을 살펴보고자 한다.

1. 行動으로부터 規則의 推論.

Shimanoff는 規則은 行動으로 부터 推論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모든 행동으로부터 規則을 推論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⁵⁸⁾

規則이 推論될 수 있는 行動 즉, 規則 發生的 行動(rule-generated behavior)의 條件을 規則의 속성에 견주어서 統制(controllable), 批評(criticizable)과 狀況(contextual)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행동으로 보고 있다. 統制的 行動이란 행위자가 육체적으로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행동을 말한다.⁵⁹⁾ 다시 말하면 행위자의 의지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행동이다. 반면에 批評的 행동은 선호적 행동 혹은 비선호적 행동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을 가르킨다.⁶⁰⁾

規則 發生的 行動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이 統制的이고 동시에 批評的 性格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이에 덧붙여 위의 두 속성을 지닌 행동은 유사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될 때 비로소 規則 發生的 行動이 될 수 있다.⁶¹⁾ 왜냐하면 規則은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성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規則 發生的 行動은 앞에서 말한 規則 理論의 탐구 영역인 표준화된 協業 狀況에서의 行爲와는 그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양자가 결국 定型的 行動 패턴을 規則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수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規則 發生的 行動이 나타날 때 그러한 規則 發生的 행동으로부터 어떻게 規則을 추론할 수 있겠는가? Shimanoff는 規則의 推論方法으로 유통도의 형식을 빌어 規則 推論을 위한 決定 나무도(Decision Tree)를 제시하고 있다. <도표 5>는 規則 推論을 위한 決定 나무 그림을 보여 주는 것이다.

56) S.B. Shimanoff, 앞의 책, p.57; Shimanoff의 規則概念에 대하여서는 앞의 Chap.2의 規則의 概念 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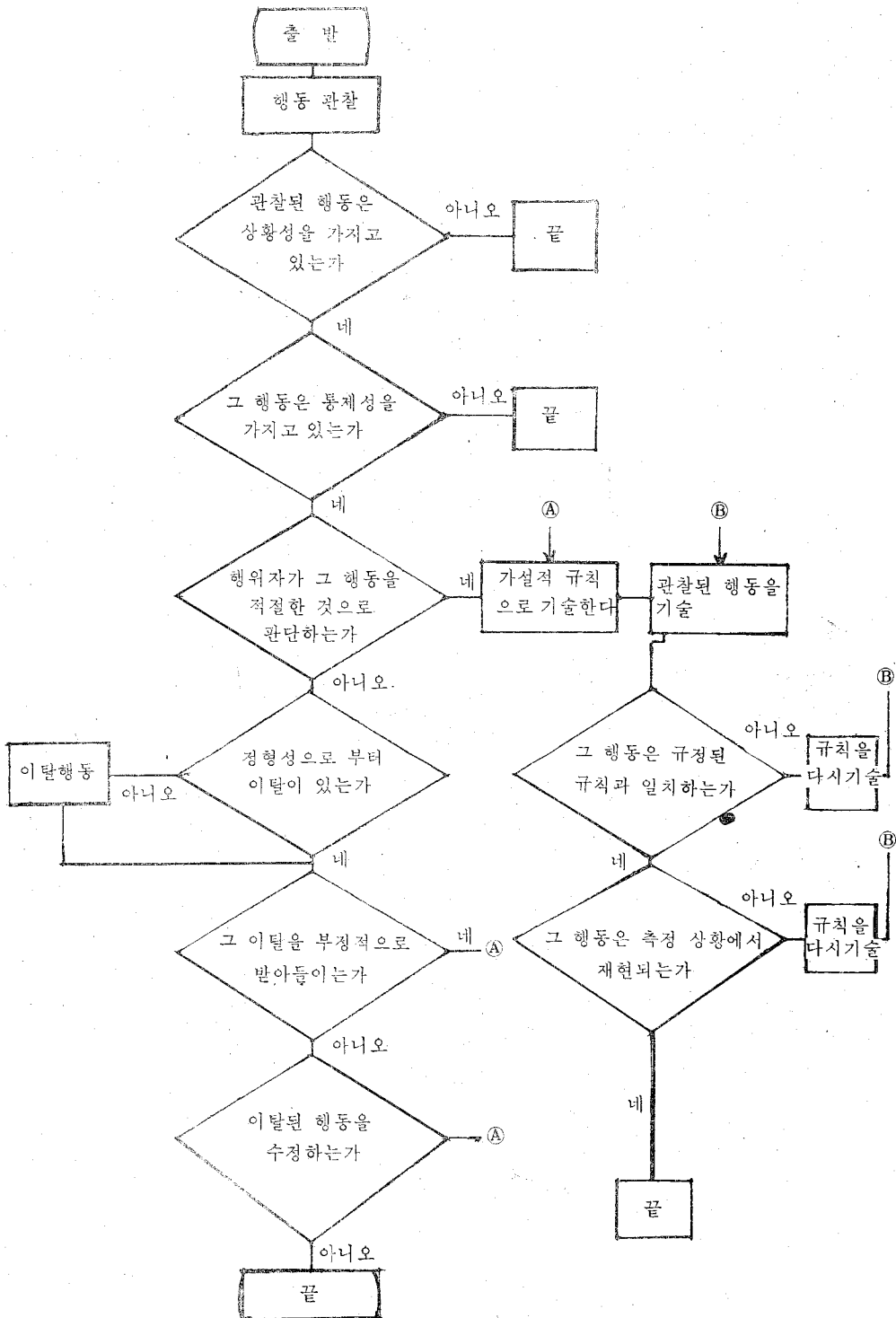
57) 위의 책, p.50.

58) 위의 책, p.89.

59) 위의 책, p.90.

60) 위의 책, p.91.

61) 위의 책, p.103.



<도표 5> 規則 推論을 위한 決定 나무 그림⁶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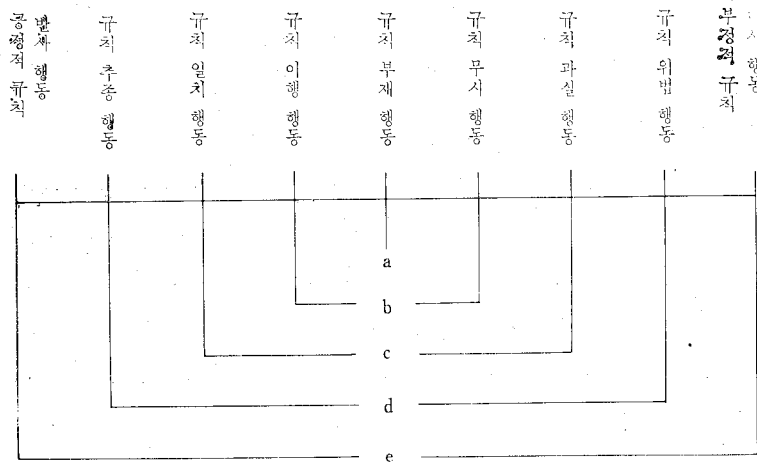
<도표 5>는 시작부터 각 질문에 순서대로 답해 나감으로써 規則 發生的 行動의 規則化 可能性 여부를 판정하고 規則的 행동이라면 그 規則을 추론하여 記述할 수 있는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2. 規則과 個別 行爲者의 行動과의 관계

Shimanoff는 規則과 行爲者의 行動과의 관계를 規則 關與 行動(rule-related behavior)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規則 關與 行動은 Toulmin과 Ganz 및 Collett의 規則 概念과 用語를 도입해서 그 나름대로 概念化시킨 용어이다. 그녀는 행위자가 행위를 할 때 規則 意識性(rule-consness)의 정도에 따라 規則 關與 行動을 구조화시키고 있다.⁶³⁾ 規則 意識性이란 행위자가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規則이라는 것을 意識하는 정도를 말한다.⁶⁴⁾

<도표 6>은 행위자가 규칙을 의식하는 정도에 따른 規則 關與 行動의 分類 도표이다.



<도표 6> 規則 關與 行動의 類型

- 요점 a: 非統制性, 非評價性, 또는 非狀況性.
 b: 規則支配이나 規則에 대한 知識은 없음.
 c: 規則에 대하여 無言의 知識이 있음.
 d: 規則에 대한 意識的 知識이 있음.
 e: d+規則의 評價

이 도표에서 보여 주고 있는 規則 不在 행동(rule-absent behavior)이란 規則 發生的 行動의 속성을 전혀 보여 주고 있지 않은 行動을 말한다.⁶⁶⁾ 規則 이행 행동(rule-fulfilling behavior)은 행위자의 행동이 우연하게 특정 規則과 일치한 行動인 반면에⁶⁷⁾ 規則 無視 行動

62) 위의 책, pp. 106-7.
 63) 위의 책, pp. 126-34.
 64) 위의 책, p. 126.
 65) 위의 책, p. 127.
 66) 위의 책, pp. 126-27.
 67) 위의 책, pp. 127-28.

(rule-ignorant behavior)은 이와 대조되는 행동으로 행위자가 規則을 모르기 때문에 規則과 일치하게 행하지 못한 행동을 말한다.⁶⁸⁾

행위자의 행동이 規則과 일치하고 동시에 規則의 規定力에 대하여 행위자가 無言의 知識을 갖고서 행한 행동을 規則一致 行動(rule-conforming behavior)이라고 한다.⁶⁹⁾ 여기서 행위자의 無言의 知識이란 規則을 말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 적절한 행동과 비적절한 행동을 區分할 줄 아는 행위자의 능력, 유사한 상황에 그 規則의 行動 規定力을 확장·적용할 줄 아는 행위자의 능력, 이타적 행동의 행위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표현을 할 줄 아는 능력 및 이타적 행동을 수정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⁷⁰⁾

이와 대조되는 규칙 과실 행동(rule-error behavior)은 規則에 대한 意識的 근거없이 規則으로부터 이탈한 행동이나 規則에 대한 부분적 지식만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規則을 무의식적으로 따르지 못한 행동을 일컫는다.⁷¹⁾

한편 規則 追從 行動(rule-following behavior)은 規則과 일관성있게 일치되도록 행하는 행동이며 동시에 행위자가 規則에 대하여 의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의식적으로 규칙과 일치시키는 행동인 반면⁷²⁾ 규칙 위반 행동(rule-violation behavior)은 規則을 알지만 의식적으로 規則을 따르지 않는 행동을 가리킨다.⁷³⁾

또한 긍정적 規則 反射의 行動(positive rule-reflexive behavior)은 規則 追從 行動에 덧붙여 그 行動을 행위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행동이며,⁷⁴⁾ 그와 반대로 否定的으로 評價한 행동이 否定的 規則 反射의 行動(negative rule-reflexive behavior)이다.⁷⁵⁾ 이상과 같이 Shimanoff는 規則과 行爲者 行動의 관계를 통하여 행위자의 규칙이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커뮤니케이션 규칙이론은 規則 推論 方式과 規則 利用 方式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 規則을 발견하고 이를 공리형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規則을 제시하고 있다.⁷⁶⁾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規則의 공리는 앞으로 커뮤니케이션 규칙을 파악하기 위한 가설로써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녀의 규칙이론은 커뮤니케이션 규칙 이론의 보다 체계적인 정립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녀의 이론은 規則이 왜 일어나는가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68) 위의 책, pp. 132-33.

69) 위의 책, p-128.

70) 위의 책, pp. 128-131.

71) 위의 책, p. 133.

72) 위의 책, p. 131.

73) 위의 책, p. 134.

74) 위의 책, p. 132.

75) 위의 책, p. 134.

76) 커뮤니케이션 규칙의 공리는 지면상 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서는 Shimanoff의 위의 책, pp. 207-216을 참조하기 바람.

V. 規則 理論의 限界

規則 理論은 그 接近 方式이 다양하여 各 接近 方式에 따라 미묘한 差異를 보여 주고 있다. Pearce의 意味의 協業 管理 理論은 規則 使用的 行動 觀點의 토대위에서 생성된 理論이며 Shimanoff의 소위 統合 理論은 諸 觀點의 統合의 바탕위에서 展開되었다고 할 수 있다.

規則 理論 接近方式의 다양성은 커뮤니케이션 行動의 다각적 측면을 포괄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겠으나 個別的 觀點만으로는 커뮤니케이션 現象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理論化 可能性의 부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보다 세부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規則 追從의 行動 接近方式을 커뮤니케이션의 階層的 屬性을 무시하는 관계로 意味의 階層的 諸水準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딜레마와 인간행동의 必然性(necessity)을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인간행동의 인과성을 밝혀주는 說明力이 制限되어 있는 반면에⁷⁷⁾ 規則 支配的 行動 接近方式은 커뮤니케이션 行爲者가 의도적으로 行動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기 때문에 行爲者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規則을 습득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의 부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⁷⁸⁾

이에 덧붙여 規則 理論은 規則의 개념적 혼란으로 인하여 단일하고 통합된 이론으로서의 體系化가 어렵고 또한 이의 결과로서 規則 理論이 아직 커뮤니케이션 過程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限界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規則 理論의 說明力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온 問題點이며 이에 대한 학자들의 見解도 差異를 보이고 있다.

Cushman과 Pearce는 비록 規則의 接近方式에는 論理的 必然성이 결여되어 있으나 行爲者 스스로가 행위를 規制하려는 規範力(normative force)이 規則에는 있기 때문에 實用的 必然性(practical necessity)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⁷⁹⁾ 이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適用力이 약한 規則(weak law)도 規則의 概念에 포함시켜 規則을 廣意로 보고 있는 Sigman은 規則 理論이 行爲者를 보통 體系(system)로 보기때문에 論理的 必然性(logical necessity)도 있다고 본다.⁸⁰⁾

그러나 規則은 法則과 달리 因果성을 밝히지 못하며 또한 廣意로서의 人間行動을 모두 파악 못한다는 적용 범위의 제한때문에 說明力이 法則의 그것보다 훨씬 뒤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規則理論이 理論의 기본 요건인 一般性(generality)과 必然性(necessity)의 문제를

77) L.E. Sarbaugh and N. Asuncion-Lande, "Theory building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ynthesizing the action caucus." in W.B. Gudykunst (ed.), 앞의 책, p.56.

78) 위의 論文, p.56.

79) D.P. Cushman & W.B. Pearce, 앞의 論文, p.177.

80) V.E. Cronen & L.K. Davis, 앞의 論文, pp.121-24: 論理的 必然성이란 정의된 관계들이 내적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로 體系(system)의 構成要素들과 같이 정의된 범위내에서 數學과 같은 論理的 關係가 있는 것을 말한다.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고 하겠다.

VI. 맺 는 말

規則이란 社會的 行爲가 組織化되고 構造化되는 機棼(mechanism)이다. 規則 理論은 行爲가 行爲者에 의하여 능동적으로 發顯되는 行爲 原理와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行爲가 再現된다는 狀況原理의 바탕위에서 社會的 行爲가 조직화되고 구조화되는 原理를 밝히려는 시도이다.

또한, 規則 理論은 行爲者, 즉 人間을 能動的인 實體로 보고 人間 行爲의 構造를 多元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준 社會 과학의 주류를 이루어 왔던 自然主義的 接近方式을 거부하고 人文主義的 接近方式을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觀點은 오늘날 人間의 行爲와 社會 現象이 自然現象의 法則과는 다르다는 社會과학의 새로운 自각과 一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같은 새로운 自각의 불모지였던 커뮤니케이션科學에 새로운 傾向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으로도 커뮤니케이션이론으로서의 規則 理論은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규칙이론은 물론 그 研究期間이 아직 일천하다는 부분적 이유가 있기는 하겠으나 아직 몇가지 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概念的 統一性을 이루어 規則 概念과 屬性의 혼란성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할 때 규칙이론은 보다 體系化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커뮤니케이션過程 및 諸現象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理論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는 개념적 혼란과도 부분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規則 理論이 충분한 설명력을 보유할때 비로소 이론적 보편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規則 理論의 適用 範圍를 점차 확장시키는 새로운 概念이나 理論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같은 패러다임은 規則 理論에 一般性을 제공함으로써 완벽한 理論化를 꾀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이 현재의 規則 理論은 아직 몇가지 보완될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커뮤니케이션現象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